



##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 은 실 학에서

### I. 서론

오늘날의 박물관은 일반대중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가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하였다. 즉, 여가에 대한 교육적 접근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물관은 그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적 기능의 강화이다. 즉, 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보편화되면서 지역의 문화 발전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박물관을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주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발전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박물관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는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관광과 잘 연계만 하면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제주는 21세기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향한 개방정책으로, 여기에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담당할 공립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공립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지역 특성상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과거의 운영방식을 답습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이 관람객 증가에 집중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II.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기능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의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와 복지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기대와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 복지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적 기관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박물관은 학생 및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시 전달 및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람객 서비스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및 문화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특히 수도권에 비해 문화와 교육 시설이 빈약한 지방의 박물관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시설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는 박물관의 운영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 교육의 대안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박물관 설립·운영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관람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며, 이는 거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전시들을 통해서 실천되며, 전시와 활동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이른다. 박물관은 실제표본, 유물, 작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 동안 교실 안에서만 수업해야 했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sup>

박물관 교육은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풍부한 실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를 활용한 흥미로운 교육을 진행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박물관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상설전시를 통한 교육에는 그 한계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관람객에 맞춘 수준별 전시가 어렵고, 전시공간이 한정적이며 전시물의 교체가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없어 10~20년 이상 동일한 전시가 이루어져 다양하고 풍부한 소장 자료를 백퍼센트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4년 개관 이후 2002~2004년 자연사전시실과 제2 민속전시실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과 해양전시관이 재건축이 되었을 뿐이며 박물관 전체 전시자료는 소장자료의 24.7%에 그치고 있다.

전시내용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은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로 흥미로움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전시내용이 장기간 교체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관람객의 만족도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곧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는 박물관 자체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윤혜영, 「자연과학계 박물관 전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쪽.  
2)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서울, 해안, 2009. 26~27쪽.





## 1. 문화욕구 충족 기능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정책이 그러하듯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문화 수요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과 문화 향수 기회 확대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sup>3)</sup>

20세기에는 경제 강대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문화 강국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국민들 역시 경제적 여유 보다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장소에서 탈피하여 휴식공간과 문화적 공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 할 것이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는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외에 예술 공연, 음악회, 영화 상영, 패션 쇼 등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과 접근성이 빈약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박물관의 문화행사는 지역주민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박물관 홍보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10년도에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문화공원에서 마련한 <피아니스트 서혜경 연주회>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배따라기 양현경과 함께하는 도립미술관 가을콘서트>,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 등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돌문화공원과 제주도립미술관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2. 여가 선용 기능

현대에 들어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로 교양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활동의 하나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박물관이 현대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하고,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증거이다. 여가활동으로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들과 친숙해지려는 여가 선용의 삶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박물관 관람은 자기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

3) 전해정, 「박물관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실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4쪽.





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박물관이 여가를 보내는 개념에서 발전하여 교육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특히 성인에 비해 여가 선용의 기회나 장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박물관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일회성이 아닌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 교실>, <박물관 학교>, <공예 교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고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시시각각 변하는 참여자들의 여가 선용 기호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로 자기개발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 3. 자기 개발 기능

자기 개발(self-development)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시민에게 개인적 관심분야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자극의 기회를 통해 발전과 자아실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시민에게 자기 개발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참여자로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자기개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박물관이 일반시민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인류와 사회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은 사회의 요구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그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sup>4)</sup>

현대인들의 지식적 충족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의 의지는 전문가 이상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4) 김의진, 「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충북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문화관광해설사, 과학해설사, 미술관 도슨트(Docent) 등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해설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즉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식 습득이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하여야 할 주된 역할이며 전문 학예인력과 박물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II.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1. 설문대상 및 구성

본 연구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도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와 연구 분야 근무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도내 문화·역사·관광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되었고, 설문 9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2010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10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째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이며, 둘째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으로 그 세부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설문 구성 내용

조 사 항 목	세 부 항 목
교육프로그램 인지도	- 프로그램 인지 정도 - 프로그램 인지 통로 -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 운영프로그램 수의 적정성 여부 -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 - 제주지역사회 요구 부합성 - 관광객 욕구 수용성

<p>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간의 적절성</li> <li>-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도</li> <li>- 사회교육 목표 성취도</li> <li>-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li> <li>- 프로그램의 체험 중심 여부</li> <li>- 수준별 차별성 정도</li> <li>- 학교교육과의 연계성</li> </ul>
<p>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li> <li>- 교육담당 전문인력 필요 여부</li> <li>-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분야</li> <li>- 참여자 확대 방안</li> <li>- 확대 교육대상</li> <li>- 연계 협력 필요기관</li> <li>- 적정 예산액</li> <li>- 홍보 강화 매체</li> <li>- 선거직 공무원의 인식</li> </ul>

## 2. 교육프로그램 인지도

인지도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음에도 그 인지도가 낮았고, 인지 경로도 주변사람을 통하였거나 근무자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자가 57.5%로 나타나, 현재의 박물관 홍보활동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극적인 홍보활동은 제한적 범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참여도에서도 개설된 것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나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홍보 활동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만족도에서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 시간 등의 다각적인 면에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 되어 진다.

## 3.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박물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운영되는 10개의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박물관의 특성 반영, 지역사회 요구 부합성,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도, 사회교육 목표 성취도 등 교육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



는 프로그램은 10개 프로그램 중 자연생태교실, 갈옷만들기, 전통문화강좌, 해양생물터치풀 등 4개에 그쳐, 이 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4개의 프로그램들도 관광객 욕구 수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이 시간적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된다. 특히 단기적 운영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시간과 기간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도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98%를 차지하는 박물관<sup>5)</sup>에서 관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에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자가 24.5%로 나타났다. 타 박물관이나 교육센터와의 협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차별화된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관련기관과의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진행 내용에 있어 자연, 민속, 역사 등의 분야별로 프로그램 일정을 체계화하고 운영기간도 늘려 참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 4.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응답자들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재인식, 충분한 재정 확보, 전담부서 설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의 특징은 여타 연구에서 박물관 활성화 방안 중 중요하게 제시되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전문인력 확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재인식 보다 낮게 응답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배경으로, 첫째,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여타 지역과는 유별난 차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전문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수 10개가 적정하다고 하지만 3년 동안 프로그램 내용에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제주지역의 문화다양성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는 교육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결과로 본 것 같다. 따라서 우

5) 2010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 유료 관람인원(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 630,235명(도외 : 617,433명, 도내 : 12,802명)





선적으로 교육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응답자들에게 있는 것 같다.

또한 체험 중심과 지역역사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참여자들은 단순 일방적 강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들이 체험하는 교육 활동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지역의 개방화 정책은 자칫 지역의 정체성 상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장치로서 우선 자신의 지역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립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역역사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험 중심의 지역 역사 분야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대해야할 참여자의 1순위로 응답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도 양호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방안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지역의 미래 주체이기 때문에 조기적 접근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의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이 각 과별 연구분야 담당자에 의해 기획·운영됨으로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간 1회성인 것이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중매체와 첨단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교육전문가는 박물관의 자료와 정보, 장소를 활용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교육전문가에 대한 중요성은 박물관 교육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가야 할 중심이 교육전문가에 있음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교육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앞으로 박물관이 지역 주민들에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한계이다. 총예산 중 4.5%가 교육프로그램에 운영되고 있는데 응답자의 71.4%가 운영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였고 42.9%가 박물관 전체 예산의 10.0%~14.9%로의 예산 증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예산 확보와 홍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 IV. 맺음말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기본적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적 기능 강화이다. 즉,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수입 증대라는 다중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문화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세계를 향한 개방성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체성 확보는 중요한 지역의 핵심과제일 수밖에 없고 국립박물관은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통한 방안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타박물관 학예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010년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은 제주지역사회의 요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 관광객들의 욕구 수요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수강생 사회 교육 목표 성취에도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홍보의 부족이다. 응답자 중 상당 수(57%)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사람으로부터 혹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근무자로부터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 효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도민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비탄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은(41.8%)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몰랐다고 응답해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34.5%가 운영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셋째, 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부재이다.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연구직 근무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 인력에 의해 교육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참여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5년 전에 개발·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매년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반복적 운영이 이루어지다보니 참신성과 차별성이 없어 참여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박물관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극적 운영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산의 한계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 총 예산의 4.5%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71.4%)은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응답자들은 전문 인력 확보,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교육 프로그램 중요성 인식, 충분한 재정 확보, 전담부서 설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체험 중심과 지역역사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한 강좌접근만으로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한 개방화 시대의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역사분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람객의 대부분이 도외 관광객인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박물관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의 확대이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도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타 박물관의 사례를 보자면 유치원생, 청소년, 교사를 포함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박물관은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참여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언론, 학교,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한정된 예산 운용을 극대화 함에 있어 지역 교육기관(초·중·고교), 국·공립박물관, 지역커뮤니티와의 협력으로 발전된 교육효과를 창출하고 더불어 이들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는 역동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여 제주사회 통합에도 일조 할 것이다.

넷째,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지역정체성 확보 및 관광 수입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최소한 현재의 예산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의 10~15%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의 양·질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전문 인력에 의해 교육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박물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이다. 특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TV 방송을 통한 광고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문 등 일간지 광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교육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예산배분은 선거직 공무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거직 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근무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홍보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장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관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공립박물관의 경우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6)</sup> 이 경우 응모자로부터 박물관 발전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제안서를 받고, 철저한 심사와 함께 1년 단위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sup>7)</sup> 개방형 공모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만 경기도박물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도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린 학예 중심의 박물관 운영은 과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민속자연사박

6) 2011년 8월 민속자연사박물관장직은 개방형 공모제로 개편되었다.

7) 김동진, 「제주의 전통문화와 박물관」,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18·19집 합본호, 제주국 제협의회, 2008, 85쪽.





물관이 본연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며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이를 실천할 수 없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도 요원하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실질적 행동이 수반될 때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지역주민에게 체득될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박물관 천국, 제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된다.

